

석유산업 현황과 향후진로



文在燾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행정사무관〉

1. 머리말

1948년 정부수립이후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15년을 주기로 크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의 35천 B/D의 정제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수입회사인 대한석유저장회사(KOSCO)가 석유를 독점 수입 공급하였으며 국내에는 이를 배분하는 대리점과 주유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당시 석유소비는 1964년에 약 7,438천배럴로 현재의 석유소비와 대비할 때 약 5일분 수준에 불과하였다. 대한석유공사의 제1공장 가동이후에는 국내 석유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도에는 66,849천배럴 수준에 이르러 1964년 대비 무려 9배나 증가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석유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동력자원부가 창설되기 전해인 1977년에는 151,203천배럴 수준이 되어 1970년 대비 2.3배에 이르렀다. 석유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60년대 수입대체공업 육성으로 산업용 연료유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수출산업 육성에 따라 나프타 등 산업원료유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당시 늘어나는 석유소비에 대비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공장의 신설이 시급히 요청되었으며 국내 부족자본을 외국 메이저와의 합작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이때까지는 필요한 제품을 국내에서 정제하여 공급하는데 주력한 시기였다.

1978년 동력자원부 창설은 제2차 석유위기와 함께이며, 이때부터는 원유의 안정확보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제 메이저등 외국합작선이 철수함에 따라 우리나라 스스로 외국에서 소요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원유의 장기계약 비율제고, 도입선 다변화, 석유비축, 유전개발 등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확보를 위해 1979년 2월부터 석유사업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국제석유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소비국과 산유국 간에도 협력관계가 재정립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경제의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따라 국내 석유산업도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또 하나의 15년을 맞

게 된다. 개방화·자율화 추세와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 OECD 가입 준비등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본전제조건이 갖춰진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구한 우리손으로 우리자원을 개발하며 우리 석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기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 석유시장을 또다시 외국인에게 내 놓고 쇠퇴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양산업으로 전환되고 말 것인지는 향후 정부와 업계모두가 노력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2. 석유산업의 현황

(1) 석유수요와 공급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비는 1980년대 전반기에는 에너지소비절약 시책등의 추진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한자리 숫자의 증가율('81~'87:6.4%)을 시현 하였으나 1988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석유는 석탄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가정 연료의 대체,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나프타 수요의 급증,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수송용유류소비 증가 등으로 1988년 이후 19.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중 석유소비량이 5억배럴을 넘어설 전망이다. 1980년 초반의 1.8억배럴에 비해 약 2.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증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제1, 2차 석유파동과 같은 에너지위기 발생시에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992년에는 석유의존도가 다시 60% 수준을 상회하게 되고 총수입액중 석유수입 비중이 약 12.5% 수준에 이르게 되어 위기시 대응능력이 약화되어 있다.

석유공급 측면에서는 소요원유의 안정확보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개발이 중요하다. 북에멘 마리브유 전등 유전개발에 성공사례가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부분이 소비지정제주의 기초하에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하여 공급하는 시설의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1992년 9월 현재 국내 정제능력은 1,675천B/D 수준으로 확장되었으며 정유 5사 경쟁체제로 국내에서 정제사업을 한 1980년도의 790천B/D보다 약 2.1배 증가한 것이다. 즉 수

요는 약 2.8배 증가한 반면 정제능력은 2.1배 증가하여 이 차이부분을 가동률 상승과 제품수입으로 대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총 석유수요중 제품수입규모는 1980년의 7.5% 수준에서 1991년에는 26.1%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1992년(1~7개월)에 들어서도 2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90년대 들어 정유사들의 계속적인 상업정제시설 증설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저유황경유, 저유황 B-C유 등 제품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석유수요변화에 대응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의 확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편 제품수출은 1980년까지는 거의 없다가 1991년에는 22.3%, 1992년에 들어서는 2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도화 시설은 현재 極東精油가 보유한 중질유 분해시설 3.4만B/D가 유일한 것으로 총 정제능력 대비 0.2% 수준에 불과하여 日本이 14% 수준에 이르고 있는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고도화 시설은 투자비가 상업정제시설에 3배이상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사업으로 현재 국내 정유사가 허가 받은 중질유분해시설 170천B/D, 탈황시설 135천B/D가 준공되기 위해서는 약 21,89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규모는 현재 정유사가 유통분야에 투여한 자금과 비슷한 막대한 규모이다.

(2) 석유시장 현황

현재 우리나라 정유업계는 油公, 湖南精油의 시장 지배적 위치에 京仁에너지, 雙龍精油, 極東精油가 꾸준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북점적 과점 생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유통경로는 정유회사, 대리점, 주유소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유회사는 공단, 군부대 등 대형소비처에는 직판을 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소비자들에게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전체 공급중 직판의 비율은 약 47%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 주유소 및 부판매점을 통해 수요처 및 개인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비율은 약 39% 정도이다.

석유소매업이라 할 수 있는 주유소는 그동안 정부

의 신설억제책으로 그 수가 억제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1991년 11월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완화하자 그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유소는 정유회사가 운영하는 곳과 개인 또는 소규모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후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대리점의 수익성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京仁지역에 주로 공급하는 대리점은 정유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대리점들의 과당경쟁으로 채산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정유사에 의한 사후 보전이 없이는 자력으로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1991년도 전문회계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리점은 경상이익이 업체당 평균 8백만원 수준으로 자기자본 수익율이 0.29%에 불과하며 특히 영업이익은 21백만원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정유사가 제공하는 매입 장려금 및 운송 수입지원 등 영업의 수익으로 손익분기점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주유소의 수익성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래조건이 좋고 차량증가율이 높은 대도시 지역이나 고속도로 등은 비교적 수익성이 좋으나 지방의 읍·면 단위의 주유소들은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주유소협회의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1989년 현재 전 주유소의 자기자본비율(토지제외)은 9.9% 수준이며 이중 서울지역 주유소는 24.45% 수준에 이른 반면 지방은 7% 수준에 불과하였다.

日本등 동남아시아지역에는 석유유통시장에까지 외국 메이저가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주유소는 5개 정유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 한편, 정유회사는 1991년중 시설투자에 12,400억원에 약 22,200억원의 추가자금 조달 소요가 발생하여 이를 국내의 차입금 증가로 약 7,500억원, 감가상각비 및 증자 등 약 1조억원을 내부에서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 상반기 중에도 약 8,600억원의 추가소요자금을 유전스 차입금 증가 3,300억원과 증자 및 감가상각비 등 약 4,500억원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계속적 증설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등으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된 실정에서 내년 1월부터 공급자유전스 사용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현

시장여건의 개선을 정유사에만 일임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3. 석유산업의 과제

(1) 석유수요와 공급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많은 산적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급격히 늘어나는 석유소비를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석유소비가 늘어나는 요인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편리한 연료를 사용코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여 발생한 수요가 전기, 가스등 타에너지로 전환할 수 없는 실정에서 그 수요가 석유에만 집중되는 결과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1 단계로 우선 늘어나는 석유소비 증가율이 에너지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둔화시키는데 정책목표가 두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평균수요를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보고, 그 이상은 연료대체로 인한 수요로 보는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수송부문의 경우 대중수송수단을 계속 늘려나가는 정책이 시급하며 가정·상업부문에서는 연탄수요 감소로 인한 수요대체가 전기, 가스등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1980년대 초반 국내 석유소비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은 탈석유전원개발 및 유연탄 사용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추진해야 할 과제는 수송부문에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계속 확보해야 되며 연비가 좋은 소형차 보급을 늘려나가야 하며 가정·상업부문에서 가스 또는 전기로 난방수단이 바뀌도록 기반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이 경우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각 연료의 상대가격 비교시 고려된 열량 대비 가격차이 개념에 추가하여 난방수단을 갖추기 위한 초기투자비용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2단계로 꾸준히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뤄질 때 석유소비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석유수요의 급증과 수요의 경질화, 저유화 등 수요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소요원유의 안정확보와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시설고도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소요원유의 안정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유전개발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최근 국교가 수립된 러

시아, 中國 등 북방권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관 파견 등은 시급한 과제이다.

정제시설의 확충과 시설고도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 조달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국제석유시장이 안정되고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석유산업에 대해서도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공급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석유 한방을 안나는 나라에서 소요에너지 조달을 타인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아직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현재 원유는 증질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국내석유수요는 경질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조속히 증질유분해 등 고도화시설의 비율을 제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제석유가격이 안정되어 있어 당분간 투자를 연기하고 고급원유를 들여다 정제하거나 정제시설의 가동률을 높여 소요제품을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제품을 수입공급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하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고도화시설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원가가 인하되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면제 등 방안이 이뤄져야 하고 생산제품도 국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입 제도 및 유통시장 배분 등 수급정책도 개선되어야 한다. 엄청난 투자비를 조달한 회사로 하여금 시장확보를 위해 또다시 돈을 투입하라고 요구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한편 국내유가는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내산업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도 국제가격수준으로 구조조성이 되어야 한다. 특정 유종의 고가유지는 제품수입, 판매를 선호하게 하여 석유산업의 건전육성에 지장을 초래한다. 지금까지 국내유가가 국제수준과 괴리된 것은 인상요인을 누적하였다가 일시에 일부유종을 인상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손실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유가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 경질유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경질유 가격을 무조건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 할 것이다. 특히 국내기업이 해외에 정제시설을 투자하여 이 제품을 가지고 국내에 판매할 경우 국내 정제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록 제도개편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석유시장의 개편

1991. 7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세를 활용하여 석유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책의 내용은 가격 자유화, 상표표시제,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는 제도의 시행 초기단계이며 경쟁에 익숙하지 않아서 정부가 의도했던 수평적 경쟁, 수직적 협조관계 보다는 수평적, 수직적 상호간에 대립과 마찰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정유사의 최근의 생산시설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과 유통시장 개편을 시장확대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려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석유유통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해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생산자와 유통업자간 대립에서 협조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유통단계에 뿌려진 자금은 생산단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내차입 도는 유전선 등을 통해 조달되고 있는 자금이 생산부문에 투입되지 않고 일부주유소 확보에만 쓰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 만큼 정유사간에 자금을 동원한 무리한 경쟁도 지양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유사는 유통업자가 항구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업종다각화 등을 지도하며 영업판매 창구로서만이 아닌 주민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을 해야 할 것이다.

유통업계도 마진현실화가 단계적으로 필요하지만 단일업종으로 정부가 정해준 마진으로 한계주유소까지 생존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이렇게 될 때까지 마진현실화만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다. 최근 국내유통시장 개방 이후 소규모의 수퍼마켓 등이 문을 닫고 국제적인 체인점에 시장을 내주는 사례는 향후에 정유사와 주유소업체가 깊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지난해 9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휘발유·등유가격 자유화에서 보았듯이, 최종소비자 단계에서 가격경쟁에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단순가격경쟁 보다는 셀프서비스 보급등을 통한 다양한 경쟁전략이 도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업계의 경쟁전환과 함께 경제민주화 요구로

서 정유업계에도 신규참여가 계속 제기될 수 있다. 기존의 정유 5사가 현재 허가받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준이 되므로 국내외적으로 참여허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때 대처방안으로 실패한 2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석유화학공업처럼 계획투자 없이 완전자유화하여 과잉공급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이동통신 처럼 특허시비가 생길수 있으므로 계획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되 투자조정 때 따른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정유업계도 개방화에 대비하여 상류부문의 투자확대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방권 국가의 개방을 계기로 국내시장과 태평양연안 시장을 하나로 묶는 지구적 규모의 경영전략 수립 또한 요청된다. 정부에서도 국내유통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의 참여가 국내석유수급 안정 및 산업의 체질강화에 계기가 되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참여의 폭을 결정하여 대비해야 한다.

4. 맺는말

정부수립 이후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이 공급된 것이 15년이 지난 1964년 5월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가동이였다. 동력자원부가 설립된 1978년 이전에는 원유공급을 외국메이저에 의존하던 시기였다. 제2차 석유위기와 함께 외국메이저들이 철수한 이후 우리힘으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시기였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15년을 맞이하는 기로에 서 있다. 정유회사는 국내 정제생산능력의 확충과 함께 종합에너지 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개방화·자율화의 추세가 석유산업에 계속적인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이며, 시행초기의 이해집단간 대립과 갈등이 노정되고 있어 오히려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 여건 변화가 석유산업의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방대해진 석유산업을 종전과 같이 관리하는 데는 행정의 효율성이 미치지 못할 뿐더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처가 미약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도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석유업계는 단기적인 수익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가기간산업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석유자원의 안정공급을 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투자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둘째, 개방화 추세속에도 국내석유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와 유통업계간 협력체제가 긴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정유업계가 유전개발등 상류부문, 중질유분해등 시설고도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며 유통부문 근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계속 요청된다. ●

■ 경제용어 ■

轉貸차관

외국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대차관은 차관을 제공하는 국가가 그들의 상품을 팔겠다는 전제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다른 차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른바 조건부대출이다.

일반적으로 차관공여주체는 특수정책금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은행으로부터 전대차관방식에 의해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으며 이와 반대로 수출입은행은 외국에 전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舊蘇聯에 제공한 30억달러의 차관중 15억달러어치의 소비재차관이 바로 전대차관이며 최근에는 쿠바에 대해서도 전대차관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